

원자력과 정치인



이 용 수
동아일보 편집위원

정 치 지도자에게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문제 인식과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를 현실과 미래를 조화시키는 예술로 표현하지 않는가.

훌륭한 정치 지도자들은 오늘보다는 내일에 더 큰 삶의 무게를 둔 경우가 많다. 그들은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면서, 비록 오늘이 힘들더라도 미래의 꿈을 키우면서 오늘을 살기를 당부한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는 미래 지향의 비전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이며, 이를 위해 스스로 행동의 주체로 나선다.

이것은 바로 정치를 하는 제 나름대로의 철학 내지 수단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미래 사회의 특징 중의 하나는 전문화와 다양화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텃밭이 될 수 있다.

잡초 같은 다양성이 저마다 특징을 가지고 전문 분야 별로 발전할 때, 그리고 이것들이 다시 합의를 이룰 때 민주주의는 꽃핀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각 분야의 총론만이 있을 뿐, 구

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신명나게 일하는 프로들이 드물다. 더욱 정치 쪽은 '정치가 모두를 포용한다'는 통 큰 포괄적 정치론만 무성하다. 분야별 프로들이 합일하는 정치가 전문화 시대의 민주 정치의 갈 길인데도.

이런 의미에서 '정치와 원자력'이란 제목은 아이러니하다. 우리의 정치 현실 속에서 원자력의 위상은 벼랑 끝에서 있다. 지금 우리 나라는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구하지 못해 관계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고, 대만의 방사성 폐기물 북한 반입 문제가 정가를 쑤시고 있다.

원자력 기술을 자립한 우리 원자력계가 세계 원자력 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

더욱 눈치럼 쌓이는 외채의 큰 부분이 에너지 자원이 되고 있는데도, 기술 자립에 의한 에너지 확보 전략이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있다.

정치에서 실종된 원자력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와 에너지 사정이 아주 비슷한 일본의 에너지 정책 및 이를 돌파하려는 일본의 한 정치가의 노력은 우리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

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두 발의 원자탄에 두 손을 들었다.

원자력을 저주하고 경원해야 할 일본이 어떻게 하여 오늘날 세계 제일의 원자력 기술 대국이 되었는가.

일본은 핵선진국 이외에는 꿈도 꾸지 못할 재처리 시설과 농축 시설을 가지고 있다. 세계의 반대 속에 플루토늄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다. 고속 증식로를 만들어 미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일본인들에게 그 원수 같은 원자력을 개발하고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삼아야겠다고 외치며 개발 노력에 노력에 햇불을 당긴 사람.

일본 원자력의 본격적인 개발은 그로부터 시작된다.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 康弘). 그는 과학자도 경제학자도 아니다. 소신에 찬 젊은 정치인이었다.

그는 「원자력과 정치인」이라는 회고록에서, 45년 8월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 구름을 다카마스의 집에서 바라보면서 과학 기술의 중요성을 가슴 깊이 느꼈다고 말한다. 그리고 원자력 개발이 장래 산업 사회의 학술 연구 및 국가의 힘을 가늠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도쿄대 정치학과 출신으로 내무성 경시청에 근무한 경력의 국회 의원.

원자력과는 티끌만큼도 관련이 없는 젊은이가 자기 조국의 땅에 떨어진 원자 폭탄의 비극을 보고, 오히려 여론과 과학 기술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원자력 개발을 서둘렀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33세에 초선 의원이 된 그는 51년 미국의 덜레스 특사가 일본을 방문하였을 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제한하지 말 것을 호소한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47년 극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모든 원자력 연구가 철저히 금지되고 있었다.

2차 대전 중에 원자탄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일본이 원자력 연구를 하도록 연합국들이 가만 둘 리 없

는 것은 당연하였던 일. 그렇기에 당시의 일본의 원자력 연구는 거의 짝을 틈을 수 없는 여건이었다.

그러나 원자력이라는 20세기 최대의 과학 기술의 산물을 평화적인 이용에서마저 금지해 버리면 일본은 영원히 4등국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미래의 청사진을 그린 그는 과학자 단체인 일본학술회의에 원자력 연구를 독촉한다.

이들의 설득에 실패한 그는 의원 입법으로 원자력 연구를 지원하고 원자력위원회 설치를 구상한다.

54년 3월 3일 소수당인 개진당 소속이었던 그는 자유당·개진당·일본자유당과의 공동 수정안으로 2억3천5백만엔의 원자력 평화이용연구 기금보조금을 들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제안한다. 일본 최초의 원자력 예산이다. 과학자들은 물론 문부성 및 신문들이 일제히 '폭주 예산', '무모한 독주', '시기 상조'라는 반대 속에서 그는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

그리고 다음 해 8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원자력 평화이용 국제회의에 사회당까지 포함한 4당 대표를 파견하여 초당적으로 대응한다.

3년간 약 2백억엔의 예산을 원자력 연구에 투입하고 원자력기본법을 제정한다. 원자력 관계 8개법과 과학기술청 설치법까지 입안하여 통과시킨다.

그가 과학기술청 장관이 되고 장수 총리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흔히 원자력 기술은 군사 대국화로 치닫는 수단으로 간단히 치부해 버리지만 그것만이 완전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에너지 자원이라고는 거의 없는 일본으로서는, 에너지 자원의 확보는 바로 생존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미래적인 견해가 일본을 미래에도 에너지 문제에서 해방시키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화석 자원의 고갈이 불을 보듯이 짙은 현실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